

“구태의연한 사업방식·넓은 관행 답습, 전격 바꾸겠다”

장승필 한국JC 중앙회장 당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능동적 사고를 통해 혁신적 가치를 확립하는 한국JC를 만들겠습니다. 구태의연한 사업방식과 외전 등 JC문화를 원형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전격 바꾸겠습니다”

2019년 (사)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장승필 회장의 당선소감이다.

지난 2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는 '2019년도 한국JC 선거직 임원 선출', '제 69차 JC제주아태대회 의무등록의 건' 등 5건의 안건상정을 위한 제139차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전국 지방 JC 수석대표 및 교체수석대표를 비롯 역대 회장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JC 상무위원회 회의에 이어 인후보자 소신발표회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어 김기남 중앙회장이 주재하는 제139차 임시총회에서 '2019년도 한국JC 선거직 임원' 선거가 있었다.

선거 개표결과 중앙회장에 장승필(순창JC) 한국JC 현상임부회장이 선출됐다. 2019년 상임부회장에



는 이종석(과주JC), 부회장에 박기범(예천JC)·김민수(새창원JC)·신인철(영광JC)·최용준(육천JC), 감사에 김호준(서울 남대문JC)·이무학(밀양JC)씨가 각각 선출됐다.

2019년도 한국JC 회장으로 당선된 장승필 당선자는 2019년도 (사)한국청년회의소 슬로건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를 생각하고 혁신적 가치를 세우는 JC, ACTIVE 2019'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특히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한국JC를 만들기 위해 북한 대표 청년단체와의 회담을 추진하고 2019년 제주 아태대회에 초청하겠다”며 “한국JC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팀을 구성해 2019년 제주 아태대회가 평화아태대회로 승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JC에 한국JC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JC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JC, ACTIVE 2019'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비전제시를 통해 능동적 변화,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업 추진, 회원들의 신뢰를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국JC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어린이 편식예방 인형극 큰 인기

임실군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형극을 통한 편식 예방교육을 가져 큰 인기를 끌었다.

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최근 임실군청 3층 문화강좌실 대강당에서 임실군 내 어린이집 10개소에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편식예방교육 '건강미녀와 편식 야수' 인형극 공연을 가졌다고 26일 전했다.

“우와”하는 어린이들의 함성소리와 함께 레이저 쇼로 시작한 인형극은 아이들의 관심을 단박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편식예방교육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전달했다.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편식을 없애고 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즐겁게 익힐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공연내용은 시로와 아라 그리고 멋진 영양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음식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색깔별로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을 고루 먹으면 매일아침 바나나같은 굵고 커다란 똥을 볼 수 있다는 얘기 등으로 전개됐다.

멋진 응가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몸도 튼튼해 진다는 편식예방 인형극이었다.

김종곤 센터장은 “어린이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형극을 통해 편식의 나쁜점을 교육함으로써 건강 습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50년동안 담아온 군산의 풍경과 사람, 모두를 위해 써주세요”

사진작가 신철균씨, 군산대 박물관에 1만5000여컷 기증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정기문)은 신철균 사진작가로부터 사진과 필름 1만5000여 컷을 기증받고 감사의 뜻을 담아 26일 군산대학교 총장실에서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식에는 고령으로 외부활동이 힘든 신철균 선생을 대신하여 공동기증자인 배우자 백영춘 여사가 참석하였다. 지난 10월말 신철균 선생은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직접 기증의사를 전달해 음에 따라 11월 14일 기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철균 선생은 1929년 생으로, 1960년대 초 사진에 입문하여 50여 년 동안 꾸준히 카메라를 통해 군산의 풍경과 사람을 담아왔으며, 유네스코 어린이 사진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30여 차례의 수상을 통해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신철균 선생이 기증한 필름 원본과 사진 데이터는 군산의 다양한 풍경과 사람, 특히 어린이의 모습이



주를 이룬다. 모든 필름과 사진에는 선생이 사진을 통해 추구하는 '철학이 담긴 사진', '청년난민학'이 들어 우리의 미래 라는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현재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1964년 월명산 정사에서 촬영한 길이 15m의 '군산의 기억'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대로 이어지는 군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진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작품이다.

이후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진 촬영을 계속하시는 신철균 선생은 “국립기관인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소중한 필름과 사진을 기증할 수 있게 되어 사진작가로서 행복하며 이 과정이 국가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항구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사진이 반드시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문 군산대학교 박물관장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려 기증 받은 많은 사진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겠다”면서 “교육과 전시, 연구를 통해 기증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비전대 학생 41명 하림에 최종 합격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한영수)는 41명이 하림에 최종 합격했다고 26일 밝혔다.

생산현장기술전문분야에 기계(23), 전기(7), 자동차(4), 신재생(2), 전자(1) 등 37명과 현장IT운영·생산지원분야에 컴퓨터(3), 통신(1) 등 4명을 포함한 총 41명이다.

하림은 1차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체계화시킨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대표 기업이자 전라북도의 향토기업이다. 금년 8월 하림그룹과 전주비전대학교 실무자 회의를 시작으로 채용 설명회, 협약 체결, 인적성 검사, 임원 면접 등 숨 가쁜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비전대학은 곧바로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모든 교육과정의 초점을 맞춘 것이 이번에 하림에 많은 인원이 합격하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하림에서 채용을 원하는 분야인 생산현장 기술전문분야와 현장IT운영·생산지원분야에서 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실무에 강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취업의 지름길인 것을 보여준 셈이다.

비전대의 수업은 책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암기하기보다는 실제로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산학 맞춤형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방화중에는 밀도 높은 현장실습과 기술연수 등을 받게 해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현장에서 철저히 다시 익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공과 인성교육으로 분야를 나누어 재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할 과정을 만들고 이를 모두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익산 국화축제에 동호인 축구대회 성료

익산시 축구협회(왕경배 회장)는 '제2회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동호인 초·중·고 축구대회'를 25일 한일 아사달 축구장에서 성황리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익산시 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북 및 중부지역 6개 부서 106팀(중부권 35팀, 전북권 31팀)에서 참여했다.

조배숙 국회의원, 이권재 전라북도 축구협회 회장 및 14개 시군 축구협회장 등 1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 1.2위가 본선에 진출해 토너먼트 전 방식으로 진행 됐다.

이날 경기에서 익산삼물팀 및 중부권 익산 청문팀 등이 우승했고 한일 심우회가 준우승했다.

왕경배 익산시축구협회 회장은 “제2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축구대회 참가에 주신 동호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축구도 전국 체전 정식종목이 채택 될 날이 멀지 않은 만큼 동호인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정읍시장에인어올림합창단, 전국대회 비전상 수상

제26회 세계 장애인 날을 기념하여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가 최근 서울 KBS 홀에서 열렸다.

합창대회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교류협회중앙회와 정읍시가 주최했으며, 전국 시도별 예선을 거친 16개국에 참여하여 열린 경연을 펼쳤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장애인 참여자와 가족,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정읍시는 전북지역 예선에서 대상을 받아 전북을 대표하여 출전하게 되었으며, 이날 합창단원 43명과 응원단 30여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정읍시장에인어올림 합창단은 비전상을 수상하여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고, 대상은 하남시장에인 합창단이 수상했다.

합창단 관계자는 “앞으로 정읍시장에인어올림 합창단은 정읍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합창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산내면, 경남 함양 마천면과 영·호남 화합행사

남원시 산내면(면장 우남제)은 최근 산내면 부유마을에서 자매결연지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과 산내면 기관단체장, 이장, 면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영·호남(마천-산내) 화합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22년째를 맞은 영·호남 화합행사는 지난 1996년 협약식 체결 후 운번제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홀수년도는 마천면이 주관하고 짝수년도는 산내면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 산내면에서는 우남제 산내면장, 박완국 발전협의회장, 최충석 이장협의회장 등 30여명이, 함양군 마천면에서는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 이경목 마천면장, 여중년 이장협의회장, 김관열 발전협의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간담회, 지역 특산물(산내면 반달곰 사과, 마천면 천양봉 포코피) 선물교환, 국립공원 탐방로 체험, 기타 체육행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리산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친목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양 지역의 유대강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 청문실, 범죄피해자 직간접 지원활동 내실화 호응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뜻밖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활동을 내실있게 펼치고 있어 해당 주민들로부터 잔잔한 호응을 얻고 있다.

상해사건을 비롯 해당되는 사안의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 연 중 밀도 있는 홍보활동은 기본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지원, 신변보호 임시숙소 마련, 스마트워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발생 사안별 맞춤형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겪었을 아픔 치유를 위해 심리치료 상담을 중심으로 보다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생활로의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전담경찰관과 위기 개입상담관들이 직접 찾아가 마음속 사정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모색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러한 일들도 하는 지 전에는 잘 몰랐으나 전문가들이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같이 모색해 주려는 모습에 치유가 되고 있다”는 일성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경찰 마이파출소, 주민 대상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소장 최양환)는 26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상가 및 마을회관에 들러 어르신들에게 최근 지능범죄와 되어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대해 피해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예방책으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에는 받지 않는 것이 좋고,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성 전화는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특히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양환 소장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